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8호 【루계 제25281호】 주체105(2016)년 5월 17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비극적인 민족분렬의 력사가 세기와 년대를 넘어 어느덧 70여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여 강성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의 간섭과 횡포는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다.

이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사대매국행위 또한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결국 날이 감에 따라 분렬의 장벽은 걷잡을수없이 높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으로 자자손손 이어온 조상대대의 고유한 민족성마저 사라져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것이 나라의 통일이며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것이 우리 민족이 당하고있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이다.

지속되고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담고있는 사상의 혁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립장과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내외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당국자들을 비롯한 몇몇 분렬주의자들만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속빼뚤어진 망발들을 함부로 뱉아내면서 모처럼 마련된 좋은 분위기에 헤살을 놓고있다.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밝힌다.

1.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애족과 배족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은 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통일대강이다.

새롭게 제시된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모두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개척해나가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방도들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민족이 피로써 찾고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종착점에 순조롭게 가닿을수 있지만 여기에서 탈선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렬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여날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도 자멸을 면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가 대를 이어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고수하고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온것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정세국면에서 또다시 대범하고 실천적인 통일방략을 제시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진실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력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로선에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나서야 한다.

더우기 새로운 주체적통일로선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의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무작정 시비질하고 부정하는 놀음부터 한다면 북과 남사이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것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의 혁신적인 제안을 애초부터 거부해나서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분렬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변함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일따름이다.

물론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도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정책 아닌 《정책》들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본질에 있어서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에 목적을 둔것으로서 민족의 힘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한사코 적대시하며 동족사이의 평화와 단결이 아니라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만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 되였을뿐이다.

제반 사태는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자주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을 받들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새롭게 제시된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이 가장 정당하고 더없이 공명정대한 통일방략이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자주적통일로선과 방침을 민족최고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노력해나갈것이며 필요한 실천적조치들도 주동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2.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은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의 슬픔에 몸부림치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 위대한 민족으로 그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은 민족의 힘에 대한 강한 자신심과 우리 겨레모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통일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모든것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우리 민족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지상의 명령인 통일대진군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에 매달리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적인 반통일행위이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롱락하고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하는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오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수 있는 민족사적대업이다.

말로만 통일과 애국을 웨칠것이 아니라 8천만 겨레모두가 조국통일의 앞길에 박혀있는 대결과 적대의 가시를 하나라도 뽑아버리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작은 디딤돌 한개라도 놓아나간다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령마루가 가까와올수록 길은 더 가파롭고 바람은 더욱 세찬 법이다.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준엄하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것은 그만큼 통일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우리 겨레는 대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그 억척의 힘으로 반통일의 광풍을 제압하고 길들어나가야 한다.

설사 지금까지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하여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주저없이 손잡아주고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자는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사상과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참뜻이다.

우리에게는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자랑스러운 경륜과 전통이 있으며 이를 오늘의 조국통일투쟁에서 더욱 만발하게 발양시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자주정신이 맥박치는 민족대단결의 좋은 방도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도 함께 추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3.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동족끼리 대결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얽어매고있는것은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의 미래를 결정할 오늘의 한걸음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는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이 범람하는 속에서도 모든것을 덮어놓고 다시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참다운 실천적방도들을 대범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핵페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하다느니, 《진정성없는 위장공세》라느니 뭐니 하고 동족의 아량과 선의를 깊이 헤아려보지도 않고 무작정 막무가내식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내외의 열망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지어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와 제의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국제공조》를 깨기 위한 술수이며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제재와 압박을 계속할것》이라는 극히 무례무도하고 도발적인 망발만 내뱉고있다.

자기앞에 차례진 행운의 기회도 잡을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와 치졸하고 속통바르지 못한 언사에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우리의 핵보유와 북남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북남관계에 핵문제를 끌어들일수록 궁지에 몰릴것은 남조선당국일뿐이다.

이미 공인된바와 같이 우리를 핵보유의 길로 떠밀고 무진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추동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고 그에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들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박과 전쟁도발에 광분해온자들이 그 만고대죄는 탁반우에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유와 군사적조치들에 《도발》과 《위협》의 감투를 씌우며 오늘과 같은 책임적인 시각에마저 다 저덜난 대결각본을 외워대는것은 파렴치하고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역할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핵보유국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확고부동하다.

이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흐름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좌우되게 되여있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중대한 정세국면에서 민족의 제일중대사인 통일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과거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와 아량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그 손을 잡는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조국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력사를 함께 써나갈수 있지만 끝끝내 뿌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어떤 결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엇서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던진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수밖에 없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며 자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오늘의 중대한 기로에서 심사숙고하여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전도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이 력사적시각에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통일위업의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통일강국건설을 위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주체105(2016)년 5월 16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대회 진행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대회가 1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갈 군중들의 드높은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만세!》, 《모두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최후승리》를 비롯한 구호판들과 글발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조선로동당 만세》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박태성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이며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혁명적대경사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어머니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승리의 5월을 향한 보람찬 전투에 떨쳐나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력, 석탄, 비료, 세멘트를 비롯한 주요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총정의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도안의 농업부문에서 농사차비를 질적으로 끝내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나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같은 전형단위들이 배출되였으며 그 모범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도안의 전투장들마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우에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념원하시던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지상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강원도군중대회 진행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정경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도안의 인민들이 어머니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수풍발전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 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많은 단위들에서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킨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 110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70일전투기간 도적인 지방공업총생산액계획이 203%로 초과완수되였다고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전형단위인 대천군 운흥협동농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경쟁열풍이 휘몰아쳐 올해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70일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비약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저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보다 강대해질것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6년 5월 9일 메히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높은 직책에 추대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길로 조선인민을 변함없이 이끌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나라와 인민의 복리를 위한 창조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아.쥬가노브
2016년 5월 10일 모스크바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몽골인민혁명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력사적인 이번 대회를 통하여 귀국인민과 귀국의 발전과 진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였습니다.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각하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느.엔호바야르
2016년 5월 10일 울란바따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존경과 숭고한 친선의 마음을 담아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책임적인 직책에 추대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직책에서 사업적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뻬.엔.씨모넨꼬
2016년 5월 10일 끼예브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주체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인 새 리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한결같은 신뢰속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한생을 바쳐 마련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그 어떤 시련도 과감히 뚫고 종국적승리를 향해 더욱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으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도 주체의 한길따라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대를 이어 떨칠수 있게 되였다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아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진로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주체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다듬고있는데 대해 피력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현명하게 령도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포근히 안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오늘은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고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와 같은 은총에 티없이 깨끗한 충정으로 보답해나갈것이라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세세년년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위업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총련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발걸음을 맞추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축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원산화학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1면에서 계속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중대회에서는 임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당대회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된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떨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어머니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의 나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애국헌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의지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 제7차대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 서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당면한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고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례성강청년3호, 5호발전소 등 중요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인 도를 철옹성같이 다지고 모두가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중대회에서는 박정남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안고 70일전투에 용약 떨쳐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70일전투기간 원산구두공장, 원산유리병공장 등 도내 수십개 단위가 년간계획을, 도림업관리국,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110여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70일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강원땅 인민들의 견인불발의 기상과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졌으며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전선에서 농사차비를 질적으로 끝내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언급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원산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서고 원산군민발전소가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훌륭히 완공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력자강으로 새로운 발전소들을 일떠세우며 문천소년단야영소건설과 도예술극장개건공사를 빨리 끝내는것과 함께 원산지구를 도시형성의 본보기, 세계적인 관광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선군혁명로선과 병진로선을 받들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원, 그 부름 빛나는것은

참으로 벅찬 날과 날이 이 땅에 흐르고 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장엄한 대진군의 저세찬 박동이 되여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모두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축성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휘황한 전망…

눈부신 우리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게 하는 백승의 화살표따라 천만대오가 나아간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참뜻을 배우며 성장한 이 땅의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원들은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시련의 시기마다 대오의 앞장에서 싸워나갔습니다.》

조선로동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추억깊은 이야기가 있다.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전시실에 보존된 한 조선로동당원의 피묻은 당원증앞에서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적탄이 뚫고나간 흔적과 함께 붉은 피가 스며있는 당원증.

원쑤들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당원증을 품고 용맹을 떨치던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는 근엄한 빛이 어리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절절하신 음성으로 자신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당원이란 자기 신념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각적인 투사들이라고,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면서도 거기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에 그들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어도 그들이 흘린 피와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있는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렇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피끓는 심장을 서슴없이 바친 조선로동당원은 죽어서도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다.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이 그렇게 당원증을 심장에 품고 수령을 보위하고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전후 천리마선구자들이 당원의 숭고한 자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재더미를 헤치고 빈터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

수십년세월 철창속에 갇히여 원쑤놈들의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당과 수령앞에 한번 다진 혁명절개를 굽히지 않고 자기의 당원증번호를 외우며 굴함없이 싸워 끝끝내 위대한 당의 품에 안긴 리인모동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지난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앞장에서 받든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이였다.

허리띠를 조이다 못해 굶어 쓰러지면서도 기대곁을 떠나지 않은 당원들, 풍강냉이를 씹어먹으면서도 우리 식의 새 제품을 기어이 만들어낸 지식인 당원들…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자강땅에 력사적인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그곳 당원들이 터친 심장의 목소리가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들려온다.

《장군님, 우리에게 일감을 더 주십시오.》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도 우리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살아도 죽어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운 사람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조선로동당원!

고귀한 이 말을 심장에 손을 얹고 다시금 불러보자.

그럴수록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달리는 살수 없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이라는 숭고한 자각이 가슴깊이 새겨지리라.

그 부름은 자기를 말하여주는 고귀한 칭호이기 전에 당의 숨결에 자기의 숨결을 잇는 피와 열이여야 하고 심장의 박동이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부름에 주저없이 심장을 내대고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의 투철한 혁명신조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여야 한다.

당원들이여,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우리 당원들이 최후승리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것은 그대로 존엄높은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실증으로, 우리의 강대성에 대한 시위로,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웅변으로 될것이다.

당의 부름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조선로동당원이라고 말하지 말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오늘의 혁명적대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빛내이자.

본사기자 채히성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혁명적당의 강령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목적과 과업을 밝힌 지침이다.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당의 최고강령은 수령의 위대한 후계자에 의해서만 제시될수 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우리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백승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여기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최종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인간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된 사회의 면모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해명을 주고있다. 여기에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에 관한 사상리론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담고있는 사상리론들의 심오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이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사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영원히 발전하는 사회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여기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이 명시되여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과학적인 투쟁전략과 전술, 원칙과 방도가 다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 선군정치리론과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사상리론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주체혁명위업수행의 3대혁명력량과 강국건설의 3대기둥에 관한 사상, 주체의 령도예술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고귀한 지침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집대성되여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총로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혁명리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3대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성룡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산림복구전투성과 확대

북부고산지대들에서 10일동안에 수천정보의 산림을 조성

북부고산지대들에서 산림복구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교향땅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불같은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산림조성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일동안에 북부고산지대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나 더 많은 천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수천정보의 산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는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북부고산지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부고산지대 담조직들에서는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산림복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었다.

랑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자연파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짧은 기간에 근 3천정보의 산에 이깔나무, 잣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많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짧은 기간에 근 천만그루의 이깔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었다.

보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 련일 실적을 올리었다. 이들은 자기 고향의 산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름률을 첫자리에 놓고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수백만그루의 이깔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지난해 뿌리활성제를 리용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김형직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었다.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모든 단위들에 그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김형직군, 김정숙군, 삼수군들에서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나 더 많은 이깔나무를 심었다. 교향산천을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뿌리활성제 리용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들은 흙과 뿌리활성제를 일정한 비률로 섞은것을 물에 잠그었던 나무뿌리에 뿌려 심었다. 겉파 어퍼가지 영양성분에 의해 나무의 잔뿌리가 많이 생기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운흥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단계별산림복구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운 일군들은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뿌리활성제의 효능이 잘 나타나게 하였다.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뿌리활성제와 함께 테라코템을 나무심기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백암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전화의 나날 불타는 전호가에 나무를 심고 가꾼 화선용사들처럼 나무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었다. 그들은 이른아침에 뜬 나무모를 그날 오전중으로 심어 뿌리활성제와 테라코템의 우월성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그들은 수분흡착력이 센 테라코템액에 나무뿌리를 잠그었다가 심었다. 그리하여 나무뿌리가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흡수하도록 하였다.

혜산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나무심기에서 뿌리활성제와 테라코템을 기술적요구대로 리용하여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자강도의 룡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태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선 이들은 산림설계에 따라 적지를 정하고 구뎅이파기를 알세웠다. 그리고 테라코템을 기술적요구대로 리용하면서 나무를 심어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다.

함경북도의 어랑군에서도 나무심기가 힘있게 진행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땔나무림조성을 중요과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구뎅이파기와 나무모포장을 확고히 앞세워 읍지구와 화룡지구에 수십만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다.

함경남도의 부전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고향산천을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끓이며 힘차게 떨쳐나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종의 많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정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훌륭히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모체양묘장을 새로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훌륭히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모체양묘장을 새로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체양묘장이 큰 온을 네게 함으로써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나라의 첫 양묘공장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으로 온 나라가 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2호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었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첫 양묘공장! 산림부문에서 대비약, 대사변이 일어나 새로운 시대이가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긍지로운것인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일군들은 하나같이 《백두산악파》 같은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용단과 현명한 령도가 우리 나라의 첫 양묘공장을 일떠세웠습니다. 세계에 대고 산림복구전투승리의 봉창호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 나라의 첫 양묘공장은 산림복구전투에서 대승전고를 앞당겨 울리게 할 만년기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습니다.》

착공후 불과 130여일만에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이 생겨났다. 지난 시기같으면 몇해동안에 끝내도 기적이라고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방대한 현대화공사가 몇달동안에 완공되여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솟아났다. 우리 나라가 21세기 표본양묘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주인공들인 일군들과 군인전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모두에게 깨우쳐주는 력사의 철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우리 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배짱과 담력, 김정일애국주의와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니면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고 100년대의 변혁도 단숨에 일으킬수 있다는 진리이다.

◇ 제2, 제3의 양묘공장들을 도처에 일떠세우자!

산림복구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자연파의 전쟁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122호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제2, 제3의 양묘공장들을 도처에 일떠세워야 한다.

122호양묘장은 통합조종체계가 훌륭히 구축되고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이 교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한마디로 이 양묘장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모든 도들에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여 한해에 2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각 도책임일군들은 자기 도의 양묘장건설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절사관철로 대답해나서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는 단순한 나무심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애국심을 뿌리깊이 심어주고 거목같은 충성의 마음을 자래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자로 키워주는 숭고한 사업이다.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최상의 수준에서 모든 설비들과 공정들을 갖추어 빠른 기간에 능력이 크면서도 현대화된 양묘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모두가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 정책절사옹위정신의 불길높이 도처에 파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제2, 제3의 양묘공장들을 일떠세워 산림복구전투에서 영웅신화가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자.

양묘장을 새로 건설

북창군에서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속에 묵창군산림경영소에 모체양묘장이 새로 건설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과 야외재배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모체양묘장이 건설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나무모생산을 2배이상 늘여 산림복구전투를 더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체양묘장은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보장하여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군산림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체양묘장의 뒤산중턱에 있는 샘터주변에 수백㎥짜리 물탕크를 만들고 여기서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에 물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결과 전기를 쓰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과 산중턱사이의 높이차이로 생긴 물압력에 의하여 회전식분무기로 분무식관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들은 모체양묘장옆에 흐르는 하천의 합리적인 위치에 보막이를 함으로써 자연흐름식으로 야외재배장과 나무모밭에 관수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야외재배장에는 필요에 따라 방울식관수나 분무식관수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놓았다. 결과 많은 품을 절약하면서도 나무모의 종류별, 생육단계에 따라 물주기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들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양묘장들을 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을 철사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온 결과 이룩된것이다.

온 나라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일군들은 모체양묘장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높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보면서 읍지구와 가까운 어느 한 하천옆에 모체양묘장건설위치를 정하였다. 그리하여 물과 로력보장조건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지난 시기의 부족점을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모래톱흙땅으로서 지력도 높아 나무모생산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청년들이 앞장에서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속에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훌륭히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모체양묘장을 새로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체양묘장이 큰 온을 네게 함으로써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의지

각지에서 제방공사 근 3배, 강바닥파기 1.7배의 실적 기록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사관철할 드높은 열의로 가을을 끓이며 강하천정리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성과를 거둔데 이어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정계획보다 제방공사는 근 3배, 강바닥파기는 1.7배의 실적을 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수천정보의 농경지와 수십km의 철도, 도로를 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여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는 크고작은 강하천들과 호수, 저수지들이 많아 귀자원이 풍부한것만큼 물관리를 잘하면 나라와 인민의 물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큰물과 가뭄피해도 막을수 있고 조국강토의 풍치도 더 훌륭히 꾸밀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자랑스럽게 빛내인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활화산마냥 분출된 애국열의를 안고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내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불타는 결의드높이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도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말뚝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장하천정리를 본때있게 하기 위한 투쟁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고 모든 강을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이 창조되였다. 특히 청천강의 룡화4호제방공사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큰물로 완전히 파괴되였던 제방을 다시 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안주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70일전투기간에 1단계공사를 끝낸데 이어 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2단계공사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간 결과 가장 어려운 20여m구간의 제방성토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리하여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500여정보의 농경지와 100여세대의 살림집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함경남도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금야군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금야강의 호안장석공사를 완강하게 내밀어 성격파를 거둔 기세를 늦춤이 없이 호안림조성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결과 수십정보의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영광군에서도 성천강제방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많은 농경지와 공공건물, 살림집들을 큰물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청진시를 비롯하여 함경북도 안의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호안공사와 제방장석공사를 하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강하천정리사업에 떨쳐나 농경지들과 공공건물, 살림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방을 쌓아나갔다. 이밖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에서도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강들을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도시설계를 잘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황해남도도시설계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25호 주체105(2016)년 5월 1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대혁명붉은기

정양온실농장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동석교룡산 채란중대
정주탄연구분소
선천팡산 월천갱
강계시 은정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
자성군 귀인협동농장 제5작업반
배천군 조육희협동농장 제7작업반
청단군 대풍협동농장 제1작업반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옹진광산 부흥갱
미루벌물길관리소 신곡작업반
푸산세멘트공장
경흥지도국 대군경흥염소목장
경성군 생기령협동농장 제1작업반
연상림산사업소 죽림작업소
정주철도분국 풍년역
라선철도국 선봉철길대 구룡령철길소대
정양고려호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26호 주체105(2016)년 5월 10일

평성시 중덕소학교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정성시 중덕소학교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 대한 학습열기로 전당이 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이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보고에서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전력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을 심화시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학습과정에 정무원들 누구나가 전력공업부문앞에 제시된 과업과 방도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당대회결정관철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국토환경보호성 당위원회에서도 정무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에서 성 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것은 원문학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원문을 놓고 자자구구 학습하여 뼈에 새기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자, 이것이 당위원회가 내세운 학습목표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성안에 원문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학습강사들을 인입하였다. 학습강사의 날 운영을 통해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을 원문을 놓고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학습강사들이 원문학습에서 앞장서도록 이끌었다. 이것은 성안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서 원문학습열풍이 불아치게 하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 대한 원문학습은 부서와 학습반단위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학습이 심화될수록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대회보고야말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대강이라는것을 새기게 되였다.

성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당대회보고학습을 성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시켜 실효를 거두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 당대회보고에 대한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앞장서고있다.

국장, 처장, 당세포위원장들과 마주앉은 성당위원회일군들은 실속있는 학습담화를 통하여 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이 당대회보고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목표를 높이 크게 세우며 수행방도도 정확히 찾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중앙양묘장에 나간 성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학습담화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대회보고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양묘장들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며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기 위해 당면하게 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그 방도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지도를 심화시키었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 단위가 해야 할 새로운 일감들을 더 많이 찾게 되였다.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경공업성, 식료일용품공업성, 화학공업성 당조직들에서도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 당대회보고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지도를 잘하고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자기 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크게 세워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멸의 정치대강이다.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를 깊이 학습하여 자자구구 뼈에 새기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 관철에 총매진하게 하기 위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은 계속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

리당일군의 호소는 붐철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로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집행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봄철영농작업으로 들끓는 전투장으로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농업근로자들에게 한정생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온 나라의 포전길을 밟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로고와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시기별로, 자료적으로 감동깊게 해설해주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리당일군의 호소는 붐철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리안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더 높은 농업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은 이렇게 자라났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건설하던 나날에 진행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사업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청춘기념비로 거연히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청년문제가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때에 우리 조국땅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청년대군이 혁명의 계승자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인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의 창조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 기적을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정치사업의 일단을 더듬어본다.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을 키운 백두청춘대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당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파정을 보면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발전소언제가 완공되고 백두산지구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더 굳게 단결된것이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뼈에 새기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은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대로 청년돌격대원들을 당중앙위원회와 운명의 괴로움을 잊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백두청춘대학의 최우등졸업생들로 키우겠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정치부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업목표를 더 높이 내세웠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파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랑심의 점수를 매기며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도록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짜고들었다.

우선 청년돌격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비롯한 로작들과 당문헌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발전소건설의 나날 류례없이 간고한 전투로 낮과 밤이 따로 없었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느 하루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이였다. 각 려단, 대대정치부들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작업장에 나가면서도, 휴식참에도 학습하며 토론과 론쟁의 방법으로 매일 두시간이상씩 학습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전투일과를 짜고들었다.

독보와 연구발표모임, 해설모임 등 여러 계기와 공정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수업시간이 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정치부에서는 또한 소대별, 대대별, 려단별문답식학습경연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학습의 실효를 최대로 높이였다.

함경남도려단, 정안북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를 비롯한 각 려단, 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한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정치부에서는 모든 초급청년동맹조직들을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력떨친 공청조직들처럼 최소리나는 강철의 전위대오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큰 품을 들이였다.

학습과 조직생활, 전투와업수행에서 우수한 초급단체조직들의 경험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여 모든 청년들을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의 창조자들로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청년해설원을 비롯한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청년돌격대원들이 창작한 시와 노래, 소묘작품들이 적극 발표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청년돌격대원들이 시 《어머니》와 《나의 조국》, 《백두산》, 노래 《적기가》, 《가리라 백두산으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같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와 노래들을 즐겨읊고 부르면서 언제나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을 따라 오직 곧바로, 앞으로만 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혁명기질을 더욱 억세게 다져주었다.

백두전구에 울려퍼진 구령소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전투였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 때없이 쏟아져내리는 폭설, 사납게 휘몰아치는 눈바람, 겨울철의 불리한 수송조건 등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대자연개조전투였다.

그 나날 언제나 청년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오를 힘있게 이끌고나간 돌격전의 기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정치일군들이였다.

함경북도려단이 발전기실하부구조공사와 함께 방수로굴착전투를 동시에 진행할 때였다.

방수로굴착전투장에 커다란 천연암반이 나타났다. 중기계를 리용하면 얼마든지 암반을 제거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공사장의 형편에서는 그것들을 쓸수 없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렀다.

그때 함마를 들어쥐고 청년돌격대원들앞에 나서는 지휘판이 있었다.

려단정치부장 리남동무였다.

《동무들! 이곬한 난관앞에 주춤거린다면 우리를 어떻게 백두청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누구의 힘을 바라지 말고 우리 힘으로 암반을 통째로 들어내여 발전소건설을 앞당깁시다.》

소대장 최연옥동무가 정대를 암반에 가져다댔다. 정치부장이 힘껏 내리치는 메질소리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총성이 되였다. 려단정치부 일군인 리철진동무도 함마를 들어쥐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온 려단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려단의 화선방송기재에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노래를 부르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누구나 함마를 들어잡고 돌격전에 뛰여들었다.

정치부일군들은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였지만 함마를 놓지 않고 돌격전의 앞장에서 려단이 그날 전투과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함경남도려단, 정안북도려단, 정양시려단, 자강도려단, 황해남도려단을 비롯한 각 려단, 대대의 정치부일군들은 제일 이렇고 힘든 전투장마다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폭설과 세찬 눈보라속을 뚫고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전을 이끌어나간 정안남도려단 정치부일군들. 심한 고열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른 속에서도 전투장을 뜨지 않고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킨 황해북도려단의 정치일군…

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나 이런 정치일군들이 있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이 착상한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시켜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출품시키기 위해 밤이 탈도록 뛰여다닌 사람도 정치부일군들이였고 하루전투가 끝나면 돌격대원들에게 먹일 국과 밥이 따끈한가, 병실은 훈훈한가, 어린 대원들이 집생각은 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며 밤이 깊을 때까지 다심한 친부모의 정을 기울인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방법을 구현해가는 일군들이 있기에 전설장전역에서는 날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보온텃집을 짓고 수십개의 난로에 불을 지펴가며 공사장의 온도를 보장하였으며 콩크리트타입을 하는데 쓸 물을 국가마까지 통원하여 끓여 보장하면서 언제속벽콩크리트타입을 비롯한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

백두전구에 울려퍼지는 일군들의 구령소리 《나를 따라 앞으로!》는 청년돌격대원들을 결사관철의 투사, 자강력의 체현자들로 준비시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완공을 앞당긴 또 하나의 원동력이였다.

눈속에서 피여난 백두의 만병초

우리 당의 전투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곳의 전경은 한적하기만 하였다.

보이는것은 눈덮인 산발들뿐이였고 들려오는것은 바람소리뿐이였다.

하지만 각 려단, 대대의 지휘성원들은 주저없이 두팔을 걷어올리고나섰다.

《눈속에서도 피는 백두의 만병초처럼 우리 손으로 생활을 꽃피우자!》

정치일군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켜 눈보라가 휘쓰는 외진 산간벽촌, 강기슭의 나지막한 언덕들과 산등성이들에 언땅을 파헤치고 아담한 병실들을 일떠세웠다.

한증관이 달린 목욕탕도 꾸리고 남새온실과 집짐승우리들도 지었다. 하루밤을 숙영해도 정신이 번쩍 들게 생활을 꾸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병실주변에 힘있는 구호판들과 전투속보판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세웠다.

이렇게 일떠세운 병실을 가리켜 청년돌격대원들은 유격대병실이라고 불렀다.

정치일군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짜고들었다.

청년돌격대의 하루일과에는 아침독보시간, 학습시간도 있어 병실의 청년학교들에서는 열기띤 문답식학습경연도 진행되였다.

어디서나 노래소리가 울렸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전투장에 울려퍼지는 혁명가요를 부르며 함마질을 하였고 흙마대, 돌마대를 져날랐다.

각 려단, 대대의 지휘판들은 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배구와 농구를 비롯한 여러 체육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운동장들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번듯한 운동장에서 려단, 대대들사이에 벌어지는 체육경기는 참으로 볼만 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백두대지우에 선군청년문화를 꽃피웠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눈속에서도 피는 백두의 만병초라고 말하였다.

엄후한 백두의 대자연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꽃피운 선군청년문화는 선군시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으로 더욱 아름답고 억세게, 줄기차게 빛날것이다.

* *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의 나날 투쟁의 기치, 승리의 표대로 꽃꽃에 전개되였던 대형직관선전물들과 전투속보관들의 글발들을 다시금 더듬어보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물불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청년들이여!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다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가 되자!》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

바로 이 글발들에 우리 당의 끝없는 숭고적인 혁명사상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기적을 창조하게 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정치일군들의 투철한 사상관점, 일본새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조선청년들은 당의 결심을 관철하는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긴 우리의 미더운 청년돌맹일군들과 청년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도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메오롤도 오르띠스 멘띠 집행위원겸 항구로조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안고

강동군 송가로동자구 53인민반 최영민, 리금주부부

지난해 9월말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으시였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한 나어린 소년단원과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솜옷파 장갑, 어깨받치개 등 지성을 담아 마련한 갖가지 지원물자들을 안고 백두청춘들을 또다시 찾아온 그들은 강동군 송가로동자구 53인민반에서 사는 리금주녀성과 그의 딸 최유평학생이였다.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리금주녀성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는 길에 저의 가정의 적은 지성이나마 바치고 싶었을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 이것은 리금주녀성의 심정이자 남편인 최영민동무의 마음이기도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겨울 어느날 어느 한 군인발전소건설장을 찾았던 최영민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을 안고 찾아가 뜨겁게 위해주었고 건강관리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헬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최영민동무의 귀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자기들의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던 군인건설자들의 말이 내내 떠날줄 몰랐다.

남편에게서 그 시연을 전해들은 리금주녀성도 젖어드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며칠후 그들부부는 가정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사들을 더 잘, 더 극진히 위해주자.

최영민, 리금주부부는 이렇게 마음을 다지며 원군길을 해마다 계속 이어갔다.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원군길을 이어가면서 그들부부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해 여러가지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기 시작했다.

조국보위의 길에서 청춘을 바친 특류영예군인을 친혈육으로 여기고 여러해동안 해마다 명절날, 생일날마다 귀한 보약들과 갖가지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안고 찾아가 뜨겁게 위해주었고 건강관리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헬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강동군 내동고급중학교개건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최영민, 리금주부부는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안고 골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부모의 애국헌신의 마음은 딸 유평이에게 아름답게 비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격정에 잠기였던 지난해 어느날 소학교 3학년생인 유평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자고 했다.

또랑또랑 이야기하는 딸애를 푹 껴안으며 리금주녀성은 속삭였다.

《그래 우리 함께 원수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전역으로 가자꾸나.》

뜨거운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최영민동무의 가족은 그때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위하여 남모르는 지성과 열정을 바쳐왔던것이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료기구생산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정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 전원장치 개발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이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새로운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 전원장치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투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플라즈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여기에 연구력량과 투자를 집중하고있다.

플라즈마를 리용하는 설비들에는 플라즈마절단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용사기, 플라즈마겉면경화기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리용되는것이 플라즈마절단기이다.

플라즈마절단기는 보통 플라즈마발생기, 전원장치, 물통프, 압축기 등 여러 부분품들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기본은 플라즈마전호의 안전한 방전을 보장하게 하는 전원장치이라고 말할수 있다.

온도가 15 000-20 000℃인 플라즈마전호는 매우 큰 열에네르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재료의 절단, 용접, 녹이기, 녹여뚫기, 부분품가공 등에 널리 리용된다.

새로 개발된 전기절약형전원장치는 플라즈마절단기에는 물론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용사기, 플라즈마겉면경화기를 비롯한 플라즈마가공설비들에 모두 쓰일수 있다.

지난 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리용하던 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들은 입구전원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요구성이 높으며 전자소자값이 비싸고 일단 고장이 나면 전자소자들과 쵸퍼트랜스를 수입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

이것은 인민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식의 안전한 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를 개발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심장에 새긴 플라즈마연구집단에서는 연구소탕조직의 지도밑에 새로운 전원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파학자들은 철저히 현장의 요구에 맞게 장치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으며 쓰기 편리한 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는 전력소비가 대단히 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실례로 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 1대당 소비되는 전력은 순시로 보통 40~60kW이며 전국적으로 볼때 그 량은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이것은 아무리 국산화되였다고 하여도 우리의 실정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

실장 박사 신형철, 연구사 성명학, 조일건동무를 비롯한 플라즈마연구집단의 파학자들은 신심을 잃지 않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원장치들을 설계제작하며 연구도입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그 과정에 연구집단의 파학자들은 임구전압파 주파수변동에 임의로 대응할수 있으며 종전보다 전기소모량이 1/3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전기절약형전원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전원장치로는 전류를 넓은 범위에서 조절할수 있으므로 필요한 작업구간(절단두께와 절단속도 등)에서 작업을 진행할수 있다.

새로운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도입으로 절약되는 전기량은 점멸등 약 9400개를 설치하여 절약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

이때 원가는 점멸등을 구입하는데 비해 1/40로서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크다.

우리 식의 새로운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의 전원장치개발은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참된 파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 전원장치를 도입한 현장들에서는 우리 파학자들이 개발한 전원장치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산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전기절약형플라즈마절단기 전원장치는 지금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으며 커다란 호평속에서 그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늘이나고있다.

본사기자 김 경 철

새로 만든 들숴동시갈이기계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최근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들숴동시갈이기계를 연구개발하여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계는 굳은 층을 까면서 동시에 논발갈이를 진행하여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리용전망이 크다.

현재 협동농장들에서 리용하고있는 28hp 《천리마》호트락토르는 굳은 층을 까면서 동시갈이를 진행하기에는 견인력이 낮아 힘든것으로 되여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 실장 김영기동무를 비롯한 농기계연구집단은 능률높은 들숴동시갈이기계를 연구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즐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기발한 착상으로 28hp 《천리마》호트락토르로 작업할수 있는 새형의 들숴동시갈이기계를 연구제작한 이들은 신의주시의 여러 협동농장포전들과 업주군 내중협동농장에 나가 들숴동시갈이를 진행하여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논벼와 강냉이소출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이들이 연구개발도입한 들숴동시갈이기계는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판심을 끌고있다.

연구집단에서는 새로 연구개발도입한 들숴동시갈이기계를 적극 도입일반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새로운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효능높은 대용농약

사리원과수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업에서는 병해충구제이자 곧 생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사리원과수농장에서 자체로 만들어 널리 리용하고있는 대용농약이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판심을 끌고 있다.

농장의 부원 을은경동무가 창안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과수부문 파학기술토의회 및 발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용농약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그 원가도 적어 어디서나 리용할수 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소떼살물과 뇨소비료를 물에 풀어서 밀봉한 다음 열흘간 보관한다. 이것을 거르기한 후 계면활성제를 풀어서 과일나무에 분무한다.

농장에서 3년간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도입한데 의하면 떡가루병이 발생할수 있는 시기인 5월초부터 열흘간격으로 2-3회정도 주었는데 그 효과가 대단히 컸다.

우선 떡가루병구제률은 90%, 동시에 진디물구제률은 50%나 되였다.

또한 잎덧비료역할도 하므로 과일나무의 생육에 좋았다. 결과 과일이 종전보다 14%나 증수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효능높은 대용농약을 만들어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금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과일대풍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밑에 모든 농사일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박 영 진

양어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연구성과

원산수산대학에서

원산수산대학에서 칠색송어와 메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영양면역강화제를 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영양면역강화제를 칠색송어를 기르는 양어장들에 도입한 결과 종전보다 알깨음률과 새끼고기사름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물고기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것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양어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도록 해주시고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의 물고기들을 전국의 양어장들에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새 품종의 칠색송어알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새 품종의 칠색송어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원산수산대학 수산파학연구소 소장 박사 김명숙동무는 현지에 나가 새끼칠색송어생산을 늘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 과정에 새끼칠색송어생산을 늘일수 있는 새로운 영양면역강화제를 연구개발하였다.

영양면역강화제를 도입한 결과 칠색송어의 알깨음률과 새끼고기사름률은 90%로서 종전에 비할바 없이 높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김명숙동무는 칠색송어뿐 아니라 메기생산에도 영양면역강화제를 도입하여 새끼고기사름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명숙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새끼물고기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어분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흔한 식물성원료에 의한 양어먹이생산기술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다.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노력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특파기자 신 천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여

재 일 본 조 선 인 중 앙 대 회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태양상앞에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여있었다. 주석단뒤경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함께 《경축》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에로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숭결과 발걸음을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인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흡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토지방 총련본부위원장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조선고급학교 학생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나가는 력사적도약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은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 위대한 승리의 새 력사를 안아오는 특기할 대경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는 주체위업과 함께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해왔으며 총련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성장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커다란 행운이며 최상최대의 영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는 주체위업과 함께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해왔으며 총련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성장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커다란 행운이며 최상최대의 영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는 주체위업과 함께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해왔으며 총련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성장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시며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가시는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대행운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은 재일동포들을 두터운 정을 안고사는 한식솔로 포근히 안아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에 부풀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총련의 기본사업방향과 5대과업을 천명하시고 그 수행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고계시며 뜻깊은 올해에 창립 60돐을 맞은 조선대학교에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훌륭히 이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시는가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더욱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의 력사적인 개회사에서 총결기간 우리의 결을 떠난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혁명렬사들과 함께 한덕수동지의 이름을 찍어주시여 그의 한생을 당력사와 더불어 빛내여주시였으며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주석단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을 내세워주시였으며 그 높은 연단에서 축하단 단장이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올리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을 랑독하도록 떠떠해주시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기를 돌소 받아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천명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주체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강령적지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총련의 대외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이 기약된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총 련 중 앙 사 진 전 시 회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총련중앙사진전시회가 14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새 리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인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흡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간토지방의 총련본부위원장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국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략하신 영상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 우러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백년대계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알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에 넘쳐있었다.

회세의 천출위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고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위용을 누리에 떨친 조국인민들의 자랑찬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력사적인 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감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예 술 공 연

도 쿄 에 서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예술공연이 14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인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흡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간토지방의 총련본부위원장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국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략하신 영상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 우러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백년대계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알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에 넘쳐있었다.

회세의 천출위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고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위용을 누리에 떨친 조국인민들의 자랑찬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력사적인 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감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사랑넘친 나의 조국》, 《대를 이어 지키리 공화국기발》에 이어 《우리 원수님 제일이야!》,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 등의 글을 새긴 기발들을 펼치며 금강산가극단의 무용 《경축무》가 울려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남성독창 《조국은 원수님》,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시와 무용 《세계여 우리를 보라》, 합창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에서 출연자들은 오직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단결된 힘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신념의 피줄기, 애국애족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재일동포들의 억센 의지를 훌륭히 형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이 기약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결심과 기개를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

영 국 에 서 축 하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10일 영국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영국의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가 통보되였으며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마이클 샌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더욱 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지난 몇년동안 조선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창조되였으며 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가 담보되게 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이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고 확찬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국방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시였다.

영국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해 외 동 포 들

경 축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모임이 10일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끼르기즈스딴고통련)의 주최로 비슈께크에 있는 조선센터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박경호위원장을 비롯한 끼르기즈스딴고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축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박경호위원장이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온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정상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는 창창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내 조국의 통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 리행하는 길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고 오늘의 참혹한 난국을 타개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자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피력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경축하는 모임이 10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친선협회 《로인》 협회의 주최로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친선협회 《로인》 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일군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모임장소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국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발현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통일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온 세계의 관심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가 통보되였으며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마이클 샌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더욱 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지난 몇년동안 조선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창조되였으며 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가 담보되게 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이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고 확찬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국방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시였다.

영국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세포등관에 대를 이어 깊이 전해갈 사랑의 이야기가 꽃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축산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세포등관으로 달려나와 새 가정을 이룬 제대군인들의 안해들을 위해 세포지구의 여러 군인민병원 산부인과들을 잘 꾸려줄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와 세포, 정강, 이천군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해당 군인민병원 산부인과들의 입원실, 수술실, 혜산실들의 면모가 일신되게 되였다.

보건성 일군들은 위대한 우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복부초음파기와 조명설비 그리고 건설자재까지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너성들에 대한 의료봉사조건을 더욱 개선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세포, 정강, 이천군들에 달려나간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농촌리들에까지 나가 제대군인들의 안해들은 물론 현지 너성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하면서 70일전후의 나날을 뜨거운 정성으로 수놓아갔다.

누군들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생산과 건설에서의 전례없는 기적창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있는 때에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낌없이 들이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이렇듯 절실한 사랑의 이야기가 생겨날 줄을.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해빛 따사로이 비쳐드는 행복의 요람에서 복받은 아이들이 태여나고있다.

세포등관의 미래가 활짝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 세 포 군 인 민 병 원 에 서 —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세 자 식 을 조 국 보 위 초 소 에

섬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자식모두를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들속에는 황주군 장천협동농장 제12작업반 승유필, 윤선순부부도 있다.

집안의 한쪽벽면에 나란히 걸려있는 3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은 집안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조국보위를 공민의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있는 이들부부는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혁대의 귀중함을 깊이 새겨주었다.

부모들의 당부대로 세 자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혁명의 근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자식들의 반가운 소식이 담긴 편지가 날아올 때마다 이들부부는 후방가족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승유필, 윤선순부부는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긍지와 자랑을 안고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당면한 영농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홍 철 남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미덕의 향기 ▽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놓고 △

대 가 정 의 륜 리

저는 80살이 넘은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것은 우리 사회 인간들의 참된 륜리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어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로병들을 우대하고 돌봐주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되고있습니다. 그런 미담의 주인공들속에는 대외건설지도국 2건설처에서 일하고있는 리성배, 리종철, 김성찬동무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어느해 설명절 이른아침이였습니다. 아직은 이름도 직위도 모르는 그들이 갖가지 보약들과 설음식들을 안고 친자식들보다 먼저 찾아와 설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절음은 10여년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있습니다. 명절날과 휴식일, 생일날은 물론 때없이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친혈육의 정을 뜨겁게 느끼고있습니다. 몇푼의 돈을 위해 친부모들을 거리에 내쫓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말세기적풍조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이런 훌륭한 륜리관, 화목한 대가정의 가풍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기 위하여 저의 직은 힘이나마 바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렇듯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을 키워주신 우리 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릉라 2동 1인민반 길 련 석

널 리 자 랑 하 고 싶 습 니 다

저의 남편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이라고 사심없이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중에는 라선시 라진지구 라진봉사관리소산하 역전파일남새상점 책임자 윤은숙동무도 있습니다.

그가 저의 집에 처음 찾아온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입니다.

전쟁로병의 가정인데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면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한가득 내놓았습니다. 특 친정집을 찾은 딸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윤은숙동무의 발절음은 오늘도 이어지고있습니다.

생일날과 명절날은 물론이고 때없이 찾아와 앓지는 않는가, 생활과정에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알아보고 땔감과 부식물, 귀한 약재도 마련해주고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생일 일흔돐을 맞던 때에는 생일상도 차려주고 새옷과 몸보신에 쓰라며 닭곰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온 가정이 모인 앞에서 어머니당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며 생의 활력을 부어줄때 윤은숙동무의 진정에 저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저의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변함이 없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활짝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날수 있다는것을 느끼군 하였습니다.

진정 어머니당이 키워준 이런 훌륭한 사람들, 아름다운 우리 시대의 인간들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라선시 라진지구 남산동 전쟁로병 안 보 희

정 말 고 맙 습 니 다

지난 2월말 평양산원에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한호실에 입원해있던 사람들은 저와 딸의 앞으로의 운명을 두고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해산후 저는 물론 딸의 상태는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습니다.

과장 김영필, 담당의사 홍성호선생님들은 어머차례의 과협의회를 진행한데 이어 저와 딸의 건강을 며칠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나날 그들은 하루 24시간 언제 한번 저의 침상결을 떠나지 않았으며 의사 리영미선생님은 밤낮부천으로 하여 칸신히 호흡하던 딸의 생명을 위해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김수련선생님을 비롯한 파의료집단은 산모의 건강이 빨리 추서야 아이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집에서 마련해가지고나온 음식들을 매일 때끼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저의 입에 떠넣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 전투임무수행중에 전사한 군인의 안해라는것을 알고는 더욱 지성을 다했습니다.

지난 3월 저와 딸이 건강한 몸으로 평양산원을 나서게 되였을 때 파의료일군들은 수십벌의 애기옷과 놀이감, 우유가루 등을 안겨주어 저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지금도 평양산원으로는 많은 임신부들이 찾아오고있겠지만 퇴원후 6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잊지 않고 저의 건강상태를 매일같이 물어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는 이곳 의료집단의 모습을 통해 저는 세상에 다시 없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요람이며 행복인 고마운 이 제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저의 온복녀를 훌륭히 키워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조국보위초소에 세우겠습니다.

래탄군 기암리 신 설 화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선군조선의 핵보검으로 종식시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공화국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표명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

우리의 핵무기보유로 지구상의 힘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그 무슨 《위협》으로 된다고 걸고들면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천행동에 옮기는데로 나갔다.

미국이 올해에 들어와 감행한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최대적대행위였다.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의 면전에서 50여일간에 걸쳐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몰아온 사상 최악의 군사적도발이다.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 2만 7 000여명과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핵항공모함타격단, 상륙준비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사전장비적재함선전단 등 웅근 한차례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미국의 방대한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천하무도한 《참수작전》과 집무실과괴를 목적으로 한 《정밀타격훈련》, 《평양진격작전》 등 각이한 명칭의 공격작전들이 극도로 모험적이며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된것이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침략자들이 예명을 올리고 전쟁을 일으킨 전례는 없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병력을 대대적으로 집결해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도발하는것이 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평화는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수 있다.

우리는 공화국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의 적대행위에 자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이 지구상에서 극악한 핵범죄자가 평화수호를 위한 핵억제력강화를 업중시하면서 핵전쟁소동을 벌리는데 대하여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나라는 핵무력의 질적강화로 대응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것이 우리의 자위적대응방식이다.

우리는 침략과 전쟁에 피눈이 된 자들에게 주체조선의 군사적본때가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 우리의 련이은 실제적조치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의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담보로 되였다.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다. 이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국방공업을 발전시킨 주체적대응방식이 안아온 결실이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위협행위에 자위적조치로 대응하는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절대로 침해할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이고 실제적인 핵위협의 근원, 실체이다.

원래 비핵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누구보다 절절히 갈망하여왔으며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종일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1950년대 후반기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거듭 천명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1990년대에 조미회담이, 2003년 8월에 6자회담이 열리고 2005년에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미국때문이였다.

조미회담의 첫 시기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핵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반대로 우리가 핵을 먼저 포기해야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행동원칙이 나왔다. 그러나 조미회담력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동시행동원칙도 은을 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부쉬행정부는 9.19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무슨 《위조화폐설》을 날조해내면서 그 리행을 전면거부하였다.

우리는 국제조약도 국제기구도 다자간의 합의도 미국의 독단과 횡포, 전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전락된 조건에서 부득불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으로 된 후 미국집권세력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빼앗으려고 회유, 압박책동을 일삼았다.

미국은 《북은 핵이 자신을 지켜줄수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 《핵포기》를 집요하게 떠들어댔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수를 더욱 강화하였다.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혹하고 련속적인 제재와 봉쇄, 항시적인 핵위협과 군사적압박…

현 미행정부시기에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행정부는 발족되자마자 우리의 평화적위성 《광명성―2》호 발사를 차별적으로 문제시하였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자주적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은 핵시험이라는 자위적대응을 낳았다. 미국이 《북핵포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창을 빼들고 풍차를 향해 내달리던 돈 끼호떼처럼 놀아댔으나 그것은 도리여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고를 늘이도록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현실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과 충돌위험만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이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게 한 장본인이다. 동시에 미국의 비협조적인 대조선정책으로 평양이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한 사실을 리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6자회담에 합세하였다. 하지만 매번 일련의 합의에 도달할 때면 미국은 새로운 비난과 요구를 들이대였다. 다시말하여 평양의 협상의지를 꺾군 하였다. 결국 평양은 워싱톤과의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였으며 일련의 핵시험이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라고 보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한때 미국무장관 케리가 만일 조선이 비핵화실현을 공약한다면 미국이 조선과의 호상불가침협정체결을 고려할수 있다고 언명한것과 관련하여 외신들은 그것은 절대로 납득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야 미국이 감히 침략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조선이 일정한 핵능력을 소유한것으로 하여 조선을 침범하려는 미국의 결심은 이미 크게 약화되였다. 때문에 미국의 침범을 면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의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핵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이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를 하였다고 해서 자체의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것이다. 일단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한 후 미국은 공약을 준수하지 않고도 의연 핵타격과 재래식타격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조선은 핵보복수단을 잃게 되고 쌍방사이에 원래 존재하던 비대칭적인 균형마저도 인차 잃게 된다. 조선이 미국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방의 한장의 종이장과 자기의 핵능력을 바꿀수 있겠는가. 만일 조선이 일련의 핵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미국이 조선과의 호상불가침협정체결을 제기하겠는가.

설득력있는 평이다.

미국이 내놓은 제안이라는것은 우리를 얼려 무장해제시킨 후 손쉽게 먹어보려는 서푼 술책에 불과하였다.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이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였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적적대행위, 위협행위에 나섬으로써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약한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9.19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되였다.

미국은 우리더러 그 무슨 《공약준수》요 뭐요 할 법률적기초도 도덕적명분도 완전히 잃었다.

우리의 핵보유는 힘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수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택한 가장 정당한 길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침략전쟁에 정의의 전쟁으로, 핵전쟁위협에 핵억제력강화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기질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청산이 없는 한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우리의 핵공격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것이다.

리 현 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진행

태양의 꽃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로씨야 연해변강 나호드까, 중국 대련과 단동,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지성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수백상의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연해변강 나호드까시 1부시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며 근로하는 조선인민에게 번영과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젤료노에 호쟈이스트보회사 사장은 김정일화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어려있는 꽃이며 사랑과 아름다움, 열정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면서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중국 대련시화초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거룩한 자취가 어려있는 대련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불멸의 꽃전시회가 진행되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우리모두의 커다란 긍지로 된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박람회들에서 최우수상들을 받았으며 중국인민들속에서 태양의 꽃으로 널리 칭송받는 세계적인 명화들이다.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중국 단동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총경리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지난 10여년간 김일성화김정일화 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태양의 꽃들을 중국뿐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몽골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기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에서는 도서전시회가,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와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에서는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2일과 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이 상영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비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당대회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될것이다.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와 조선로동당에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은 조선로동당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로씨야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신문 특집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기간에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자 나로드누유 블라스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빛나는 로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70여성상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을 걸어왔다. 지난 세기말 김일성주석의 서거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집중되는 압살공세로 조선은 최악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들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하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지켜냈을뿐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여 세계를 놀래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파키스탄신문 《쿠에타 데일리 인디펜던트》는 《조선로동당의 의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승승장구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최후승리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고있다.

수리아신문들인 《알 바아스》, 《알 사우라》, 《앗 누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등의 제목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며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를 소개하는 글들을 특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장 우월한 조선의 보건제도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가 4월 2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보건사에 류례없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헌법에 무상치료를 받는것을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규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등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누구나 나이와 거주지,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고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치료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는 물론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검사비, 수술비도 100% 무료이며 료양소에 오고가는 왕복려비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의사가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보건일군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여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중앙의 유능한 의료집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받고있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이다, 조선의 보건제도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직정을 토로하였다.

이스라엘군의 불법무도한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4일과 5일 이스라엘군전투기들은 가자지대의 남부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공대지미싸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하하였다. 공습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4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6일 가자지대의 남부지역에 또다시 야만적인 땅크포사격을 가하였다. 결과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11일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팔레스티나청년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에 앞서 10일에는 가자지대에서 또 한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을 체포해갔다고 한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팔레스티나인 살림집파괴행위

이스라엘의 《안전장벽》건설을 규탄하는 팔레스티나인들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일본

일본이 《과학연구》의 미명하에 태평양의 서북부수역에서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12일 시모노세끼시에 있는 항구에서 2척의 고래잡이배가 태평양수역으로 향하였다. 일본당국은 7월말까지 110여마리의 고래를 잡을것을 획책하고있다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남극수역에서 고래잡이를 금지시킨 이후에도 일본의 고래잡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되고있어 국제사회계의 규탄과 비난을 받고있다.

집없는 가정세대수 증대

미국의 워싱톤시에서 올해 1월에 집없는 가정들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 증대되였다. 11일 시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집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의 수가 4 667명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집없는 독신자들에 비해 약 1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미국에서

미국 미시간주의 데트로이트시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불만이 고조되고있다. 현재 시당국은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있는데 교육예산적자만 해도 수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구실로 당국이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원들의 생활처지를 악화시키고있다.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해나서고있으며 이로 하여 시내 대부분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핀란드에서

핀란드의 동북부지역에서 9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사회활동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자기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경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를 겨냥한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8일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에 떼쳐나와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채무위기를 구실로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릇된 조치들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나라의 여러 도시들에서 항의시위와 집회들이 있었다고 한다.

뛰르끼예에서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시에서 1일 생존권보장을 위한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5.1절을 맞으며 일어난 집회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장시간의 로동, 녀성차별 등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40명을 체포해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헌법개정을 반대하여 시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로중의 협력관계

세계정치무대에서 구조적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지배권확보를 위한 렬강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날을 따라 거세차지는 반제자주화의 흐름속에 미국의 지배주의전략과 침략책동이 가는 곳마다에서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

상해협조기구와 브릭스, 아프리카동맹,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와 같은 국제적, 지역적기구들을 통한 비서방나라들사이의 정치경제적협력관계가 밀접해지고있다.

반면에 미국을 위수로 하는 서방세계는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심각한 사회정치적위기를 겪고있다. 랭전종식후 패권주의를 추구하던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무분별한 침략전쟁과 그로 인한 파국적인 경제위기로 미국은 일시적인 정부페쇄, 채무불리행, 예산자동삭감 등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각종 곤경을 치르어야 했다.

한편 《색갈혁명》과 《반테로전》의 후과로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사회적혼란이 조성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형형색색의 테로조직들이 생겨나 각종 테로와 류혈참극을 빚어내고있으며 그 불티가 유럽나라들에로까지 번져 빠리에서의 련쇄테로사건, 브류쎌에서의 폭탄테로사건 등이 련발하고있다. 게다가 피난민대참사까지 겹쳐 유럽동맹의 기반을 흔들어놓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 수리아분쟁으로 심각한 인도주의적문제들이 산생되고 그를 둘러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고있다. 세계가 이처럼 소란스러운 속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역내에서는 여러 대국들사이의 힘의 대결이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로중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있는것이 주목되고있다.

두 나라는 수뇌상봉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래왕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여기서 가장 주되는 분야는 정치분야이다.

로중은 쌍방의 정책과 동북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문제들에 대한 정치적지지와 련대를 강화하고있다.

두 나라는 쌍방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로, 《력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로 평가하고있다. 또한 서로의 협력관계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관건적인 요소로 된다고 하고있다.

로중이 서로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있는것은 세계정치무대에서의 근본적변화에 대처한 전략적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쏘련의 해체로 하여 국제무대에 조성되였던 정치적공백과 힘의 균형의 파괴를 리용하여 세계의 일극화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국은 군사경제적우세를 리용하여 자본주의세계를 단단히 그러쥐는것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지배령역을 넓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세계제패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 우두머리로 등장했던 미국이 또다시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려 한것이다. 1999년의 발칸전쟁과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의 이라크전쟁 등은 미국의 전횡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또한 제 비위에 거슬리면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관계없이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여러 지역문제들에 정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해나서면서 미국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악하였다. 그 어느 나라든지 미국주도하의 낡은 국제질서에 종속되여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로씨야와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해나서면서 힘을 합쳐 미국의 독판치기에 대항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의 잠재력을 현실적위협으로 느낀 미국은 두 나라를 목표로 하는 억제전략을 펼치고있다.

대로씨야정책을 보면 나토를 동쪽에로 접근시키고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군사적위협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우크라이나사태를 구실로 대로씨야경제제재를 확대하고있다.

대중국정책으로는 분립주의세력들을 극구 비호두둔하고 인권문제 등을 거들면서 중국의 사회제도에 혼란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증강하고있으며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 또한 지역내의 추종세력들과 함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군사적겁박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지역대국들을 겨냥한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다.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무대에서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며 종국적으로는 로씨야와 중국까지도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로중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지배주의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는것은 두 나라의 전략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할수 있다. 쌍방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것은 두 나라의 공통된 인식이며 공동의 리해관계이다.

얼마전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는 《로씨야와 중국은 마땅히 국제문제처리에 적극 참가하고 국제 및 지역열점문제들에서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로씨아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할뿐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와 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훌륭히 수호해나갈것이다.》라고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를 계속 취하려는 뜻이 담겨진 말이라고 할수 있다.

로중의 협력이 미국을 난감하게 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로중협력이라는 관계구도의 변화로 하여 미국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은 더 큰 장애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61080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편물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